

세계선수권까지 0.01초만 더..

한국 육상 간판 김국영

男100m 10초13 '한국新'

선수권 기준기록 통과 기대감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7·광주시청)이 남자 100m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2년 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기록(10초16)을 0.03초 앞당긴 것으로, 홀로 한국신기록을 새로 쓰며 육상 단거리 역사를 바꾸고 있다.

김국영은 25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준결승에서 10초13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다. 자신이 세운 네번째 한국신기록으로, 올 시즌 남자 100m 세계랭킹 64위, 아시아 랭킹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한국신기록의 사나이’ 김국영은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 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예선(10초 31)에서 31년 묵은 한국기록을 깨며 한국 육상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그는 당시 고(故)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지난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기록(10초34)을 31년 만에 바꿔냈다.

그는 같은 날 벌어진 준결승에서 또다시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이번엔 10초23. 한 시간 30분 전 자신이 세운 기록을 0.08초 앞당긴 새로운 한국기록이었다.

‘10초 1대’의 기록도 그의 발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결승 당시 10초16으로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10초1대의 기록을 낸 스프린터는 한국 선수로는 김국영이 최초였다.

그는 2015 베이징 세계선수권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준 기록(10초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광주광역시청)이 25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뒤 환호하고 있다. 김국영은 10초07에 레이스를 마쳤지만, 뒷바람이 초속 3.6m로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16)을 통과, 큰 무대에 설 기회도 얻었다.

만족할 수준은 못됐지만 김국영은 좌절하지 않았고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국내 최강자임을 드러내보였다.

이후 김국영은 2년 만에 또다시 10초 13이라는 한국신기록을 달성하며 ‘신기록 제조기’임을 재확인했다. 결승전에서는 10초07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 해 8월 열리는 런던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10초12)도 통과할 뿐 아니라 한국 육상을 ‘10초 0대’로 끌어올리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록은 뒷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날 결승전 당시 뒷바람은 초속 3.6m로, 국제육상연맹(IAAF)은 바람이 민감한 종목의 기록은 뒷바람 평균 초속이 2m 이내일 때만 공인한다.

육상계 안팎에서는 그의 가파른 기록 달성 레이스를 감안,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그는 올 들어 10초 47(5월 4일)로 첫 레이스를 시작한 뒤 10초 35(5월 22일)→10초24(6월2일)→10초13(6월24일) 등으로 기록을 앞당기고 있다. 김국영은 여세를 몰아 27일 정선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 국제육상대회 100m에서 런던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통과를 노린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남은 대회에서 새로운 100m 기록을 수립하고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나설 수 있도록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팻딘, 주말이 우울해

KIA 이달 주중 7전 전승·금요일 7연패...팻딘 4경기서 3패



팻딘이 주연이 된 ‘패배의 주말’이다. KIA의 6월은 강한 주중, 약한 주말로 표현할 수 있다.

KIA는 비로 취소된 두 경기를 빼고 주중에 열린 7경기에서 7전 전승을 거뒀다. 한화전 2승을 시작으로 사직 싸움에 이어 ‘난장’ 두산에도 2승을 가져오면서 주중 경기에서는 1위 팀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러나 연승 분위기는 ‘금요일 징크스’에 변변이 꺾였다. KIA는 지난 23일 1-4로 지면서 금요일 7연패 중이다.

한화전 2승 뒤 안방에서 내리 2패를 기록하며 진땀을 흘렸고, 사직 3연승 뒤에는 LG에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는 등 루징 시리즈를 남겼다. 지난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두산을 상대로 이틀 동안 31점을 만들어냈던 방망이가 마산으로 건너가 차갑게 식으며 주말 패가 쌓였다.

주중 신나게 승리를 받아서 주말에 부지런히 까먹었던 6월, ‘패배의 주말’ 중심에는 팻딘이 있었다.

지난 3일 삼성 원정을 시작으로 팻딘은 6월 4차례 등판에 나섰다. 모두 주말 3연전에 출격했던 팻딘의 성적은 승 없이 3패만 남았다.

팻딘은 지난 3일 5-3으로 앞선 5회 2사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5승을 기대했지만 대구의 아픈 기억만 더하고 말았다. /김지용기자 dok2000@

었다. 이날 불펜의 난조 속에 경기는 연장 10회 5-6 역전패로 끝났다. 팻딘의 5승은 삼성 정병근의 동점포와 함께 담장 밖으로 날아갔다.

이후 두 경기에서는 선발로서 제 몫을 해주지 못했다. 10일 넥센 강공에 4회도 버티지 못하고 3.2이닝 6실점으로 조기 강판되면서 올 시즌 자신의 최소 이닝 경기가 기록됐다. 16일 LG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7실점을 기록하고 내려왔다.

23일에도 팻딘은 웃지 못했다. 이날 팻딘은 117개의 공을 던지며 7회까지 마운드에서 버텼다. 하지만 이를 연속 두 자릿수 득점으로 성공했던 타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묵하면서 경기는 1-4패로 마무리됐고, 팻딘의 5승 도전은 또 실패로 끝났다. KIA는 24일에는 NC의 호수비 열전에 막히면서 1-6으로 졌고, 6월 4번의 주말 3연전에서 모두 열세를 기록했다.

마음처럼 풀리지 않은 팻딘의 한국도 전기가. KBO 등판 첫 경기에서부터 7점 차 승리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왔던 팻딘은 불펜의 난조 또는 수비 실수에

애를 태운 날이 많았다. 승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는 등 팻딘은 지난 5월 23일 승리 이후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

팻딘의 고전 속에 KIA의 주말 승률도 뚝 떨어졌다.

희망은 있다. 팻딘은 지난 주말 NC와 의 원정 경기에서 한층 매서워진 공을 던지면서 7경기 연속 이어졌던 피홈런도 남기지 않았다. 반전의 실마리를 찾은 팻딘이 앞선 불운과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용기자 wool@

호날두 A매치 75호 골 유럽 선수 중 두번째

컨페덱스 A조 조별리그

뉴질랜드전 선제골...4-0 승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돼 마음이 크게 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모처럼 웃음을 지었다.

호날두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컨페덱스 A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뉴질랜드를 4-0으로 완파, 포르투갈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호날두는 전반 33분 다닐루가 연어넨 페널티킥을 득점으로 연결했다. 이후 후반 22분 교체됐다.

이날 골은 자신의 A매치 통산 75번째 골이다. 유럽 선수 중에는 헝가리 페넨츠 푸스카스(84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이다.

그는 경기 후 “팀 승리를 도왔다”며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아쉬움도 보였다.

이어 “우리는 경기를 잘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기뻐했다. 호날두는 “잔디가 좋지 않아서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호날두는 4강을 넘어 결승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준결승에서 칠레나 독일과 맞붙을 것 같은데, 두 팀 모두 훌륭하지만 자신 있다”고 말했다.

B조에서는 칠레와 독일이 각각 1승 1무(승점 4)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칠레가 골득실(+2)에서 독일에 앞서 있다.

호날두는 “4강은 조별리그와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변함없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상대 특점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2011~2014년 세무당국을 속여 모두 1470만 유로(약 186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며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무주 세계태권도’ 축하 북한 시범단 선보이고 있다.

ITF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지난 24일 오후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 축하공연에서 호신술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운수 좋은 날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19연패 뒤 첫 승

한 게임 남겨놓고 내리 19연패 뒤 첫 승.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이 지난 24일 첫 승을 올렸다. 지난 2월 3일 '2017 SK핸드볼코리아리그' 개막 이후 올린 첫 승전보다.

도시공사는 지난 4개월 동안 치러진 19차례의 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맛보지 못하며 리그 순위 8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개막 이후 내리 19연 패하고 어렵게 따낸 첫 승리다.

도시공사는 지난 24일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남개발공사와의 경기에서 32-23으로 승리하며 감격스러운 첫 승을 올렸다. 개막 이후 내리 19연 패하고 어렵게 따낸 첫 승리다.

경남개발공사는 도시공사가 지난해 21게임 중 유일하게 2승을 기록했던 팀이다. 다른 팀을 상대로 한 승리 신고는 없었다.

이날 경기도 전반전까지만 해도 도시

공사의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상대 팀인 경남개발공사는 7위지만 올해 치러진 두 차례 경기에서 도시공사를 모두 제압한 바 있다. 이날도 도시공사는 14-16으로 뒤진 채 전반전을 끝내면서 첫 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후반 들어 잦은 실책을 범한 경남개발공사를 추격, 역전에 성공했고 조하람·김수정(5골 5어시스트) 등이 점수차를 벌리며 리드를 지켜냈다. 골키퍼인 박조은(10세이브, 방어율40%)도 승리에 한몫을 했다.

도시공사 조하람은 1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MVP에 선정됐다. 도시공사 선수가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적도 들어 처음이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다음달 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리그 4위팀인 삼척시청과 '2017 SK핸드볼코리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지용기자 dok2000@

운수 나쁜 날

K리그 클래식 16R 광주 FC, 전남에 1-2 패 '최하위'

프로축구 광주 FC의 ‘운수 나쁜 날’이었다.

광주 FC는 지난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당했다.

광주는 ‘캡틴’ 송승민의 골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지만, 악재가 겹치며 승리를 놓쳤다. 7경기 연속 무승(3무4패)에 그친 광주는 인천 유나이티드에 11위 자리를 내주고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출발은 좋았다. 전반 14분 정동운의 코너킥을 송승민이 헤딩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3분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을 기회가 왔다. 페널티지역 우측에서 정동운이 중앙으로 띄우려던 공이 전남 현영민의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초반 분위기를 잘 풀어가지 못한 광주는 전세를 뒤집는데 실패하면서 고개를 낮게 찬 공이 골대를 맞고 튀겨 나왔다. /김지용기자 wool@kwangju.co.kr

실축 뒤 자책골이라는 악재가 겹쳤다. 광주 문전에서 전개된 긴박한 전남 공격 상황, 수비수 이한도가 빈 골대에 뛰어 들어 급히 공을 쳐내려고 했지만 자책골이 기록됐다.

광주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반 41분 전남 골키퍼 이호승이 길게 골킥을 했고, 최후방에 서있던 김영만이 흘러넘기면서 골키퍼 윤보상에게 공이 향했다. 윤보상이 급히 뛰어오렸지만 전남 최재현과 충돌하면서 들것에 실려나왔다. 이어 심판이 페널티를 선언했다. 앞선 맞대결에서 헤트트릭을 장식했던 자일이 키커로 섰고, 잠시 뒤 전남의 역전골이 기록됐다.

초반 분위기를 잘 풀어가지 못한 광주는 전세를 뒤집는데 실패하면서 고개를 낮게 찬 공이 골대를 맞고 튀겨 나왔다. /김지용기자 wool@kwangju.co.kr